

환경부 차관,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

- 이병화 차관, 대체수자원 공급시설 설치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점검

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(경기 양평 소재)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(통상 2~4월)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.

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*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.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,000m³의 생활용수가 지역 주민 2,600여 명에게 공급된다.

* (공사기간) '24~'25년, (총사업비) 62억원, (시설) 지하차수벽, 집수매거, 집수정 등

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체수자원 확보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,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.

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빙기에 약화된 지반을 고려해 절·성토 사면*의 안전성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. 특히 취수시설 설치 등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공정과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다.

* 흙을 깎아 내거나 메워 만든 땅의 경사진 평면

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“지하수저류댐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”이라며, “전국의 물 복지 소외지역에 지하수저류댐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개요.
 2.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점검 계획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토양지하수과	책임자	과 장	신영수 (044-201-7170)
		담당자	사무관	최희정 (044-201-7186)



- ☀ 물공급 취약지역인 양평군 양동면의 가뭄 대응 및 안정적인 지하수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

□ **사업개요**

- 사업위치 :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
- 공사기간 : 2024 ~ 2025년
- 총사업비 : 6,232백만원(국비 70%, 지방비 30%)
- 용수공급계획량 : 1,000m³/일
- 급수인구 : 2,578명
- 시설개요 : 지하차수벽(310.9m), 집수매거, 취수정, 관측시설 등

□ **조감도**



□ 개요

- (일 시) '25. 3. 14.(금), 13:30 ~ 14:30
- (목 적) 물공급 취약지역에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설치 중인 지하수저류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해빙기 현장 안전관리 점검
- (장 소)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
 ※ (현장주소)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369-7번지
- (참 석) ^{환경부} 차관, 토양지하수과장 등
^{수자원공사} 한강유역본부장, 수자원사업처장 등

□ 주요 일정(안)

시간	소요	내 용	비고
13:30~14:30	'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공사 현장 점검 ※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369-7 	
13:30~13:50	'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추진 현황 보고 	한국수자원공사
13:50~14:25	'3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사 현장 주요 공정 점검 * 차수벽, 집수매거 등 공사 및 안전관리 실태 	
14:25~14:30	'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질의응답 및 종료 	